

## 4대강 살리기, 주저할 시간이 없다



특별기고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며칠 전 환경 다큐멘터리 '홈(Home)'이 개봉됐다. 세계 54개국을 돌며 8만8000명이 참여해 만든, 무척 아름답고 슬픈 영화였다. 보석 같은 지구가 병들고 시들어가는 이야기가 주제였다. 지구는 우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별이다. 대기와 물, 적당한 온도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특이한 별이다. 지구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가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가정'과 같다는 의미로 영화 제목을 'Home'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와 산업화로 지구가 황폐화돼 간다는 이야기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하천이 처한 현실이 '푸른 별' 지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봄에도 가뭄으로 수만가구가 많은 고생을 했다. 전체 시·군의 26.7%가 10년에 두 번 이상 물 부족을 겪었다 하니, 이미 연례행사가 돼버린 것. 재해는 또한 어떠한가. 해마다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는 2조원이 넘는다.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후 복구비용이 예방 투자의 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강이 처한 현실도 이처럼 절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엣그제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최종 발표됐다.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다 보니 좀 더 보완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유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그간 제기됐던 많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에 의해 흐름이 지체될 경우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오염 발생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견해를 소홀히 넘기지 말고 상세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융해시켜야 하겠다.

사업 추진 주체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이다. 온갖 이해관계자가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수록 명확한 비전과 사업목표가 설정돼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비판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